

社說

7개월 만에 모색한 '여·야·정 협치'의 길

여야 간 쟁투의 '윗소리'만 내는 여의도에 모처럼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가 되살아나는 조짐이어서 다행스럽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에 너지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약 7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데 뜻을 함께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양당 원내대표와 정부-대통령실 핵심 인사들도 배석한 오찬 회동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이었다. 이번 회동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된 시의적절하다. 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통합'과 '초당적 협력'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 간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작지는 않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과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의 정책 정교함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환율-물가 대응과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재정 운용의 적절성 등을 환기시켰다. 국민의힘이 6.3 지방 선거 전 반대하는 헌법 개정과 근대 풍선효과로 정책 정밀성이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 또한 여야 간 머리를 맞대 풀어야 할 현안이다.

작금 대한민국은 여야 간 협치(協治)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 중심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며 경제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국민은 고물가고 환율 등으로 신음하는 국난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러시아-중국과 밀착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채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도자들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비전을 위한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 이후로도 여야 간 당리당락은 접고 국민복이라는 큰 물길을 내는 데 대승적 협치를 실천하길 기대한다.

조세정의 비웃는 기업승계

"아니 주차장이 무슨 기업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상속공제에 대해서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기업상속공제는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빈 땅에 주차장을 짓고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차장과 주유소 등을 기업상속 대상에서 빼고 기업상속으로 위장한 탈세를 거르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는 1997년 중소기업 세대교체와 장수기업 육성을 돕고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기업상속기업 상속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공제했다. 공제 대상은 가족이 승계하지 않으면 기업이 단절될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장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부터 공제 한도를 300억 원까지 늘렸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500억 원으로 치솟은 공제 한도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인 2023년 600억 원까지 올랐다.

기업 승계란 명분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조세 정의의 비웃었다. 유리자금을 가진 근로자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낼 때 자산가들은 주차장과 주유소를 차렸고 카페로는 기업 인정을 받지 못하자 빵집을 겸했다.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을 굽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성실한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늦었지만 타당성이 낮으면 기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쫓아내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빵집과 주차장을 기업상속 대상에서 빼는 것만으론 세금 도둑을 막을 수 없다. 엄중 몇 개를 쫓아낸다고 600억 원짜리 조세 피난처가 사라질 리가 없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상속공제가 부자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만 열면 부자 감세를 외쳤던 정치세력도 반성해야 한다. 상속세 1억 원을 공제해주던 서민정책을 상속세 600억 원을 없애주는 부자감세로 바꾼 이유도 따져야 한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논란, 결국 문제는 주가다



최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총회 이틀 후 2조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주주까지 희석 논란과 함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비판받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가 유상증자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년 전에 유사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화에너지는 2025년 3월20일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논란이 됐다. 3월 초 72만 원대까지 올랐던 한화에너지주가는 3월21일 기준 61만 원대로 떨어졌다. 당시 한화에너지는 방산 수요가 급증하며 해외시장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유상증자라고 해명했으나 성난 주주들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두 차례 증권 신고

서 정정을 요구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해당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락 부문 대표이사가 자사 주 약 30억 원 규모를 매입하고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했으며 축소한 자금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해 조달했다.

이번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논란에서 김동관 부회장이 3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고 한화가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비슷한 대응이다.

이후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주가 상승과 함께 유상증자 규모도 2조9188억 원으로 늘었다.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구 주주 청약률 106.4%에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227.6대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4월3일 기준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주가는 144만9000원이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주식을 팔지 않고 버텼다면 주가 가치가 두 배로 뛰게 된 셈이다. 실제로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주가가 상승하며 유상증자 논란도 속 들어갔다.

결국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다. 주주들이 분

노한 이유는 보유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므로 주가만 잘 오른다면 경영진이 내리는 결정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논란의 공통적인 반응도 왜 '내 돈'으로 회사 빚을 갚자는 것이다. 주주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려려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

한화솔루션의 전망을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상을 공개하면서 '우주 태양에너지 기술'을 제시했고 한화에너지가 해당 사업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으로 증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주가 반등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주들의 눈높이가 이미 한번 크게 올랐던 주가에 걸려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생산 거점 마련이 중심이었던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다르게 이번 유상증자는 부채 상환이 주가 된다는 점도 주가 부양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다.

그래도 한화솔루션 경영진은 어떻게든 떨어진 주가를 다시 올려 유상증자의 정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남의 돈을 잃게 했으니 그걸 다시 찾게 해주는 것도 온전히 한화솔루션의 몫이다.

gyang@skyedaily.com

'구름'에서 내려온 지능... 퍼지컬AI 견인할 '젼마 4'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임계점을 넘어 서고 있다. 그동안 AI는 거대한 데이터센터와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텃밭'에 의해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공개한 오픈 소스 모델 '젼마 4(Gemma 4)'는 인공지능이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울타리를 벗어나, 드론과 로봇이라는 물리적 실제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도구'로서 완성되었음을 시사한다. 20배나 큰 덩치의 모델들을 압도하는 이 작은 거인이 물고 울 '퍼지컬 AI(physical AI)' 혁명의 실체를 짚어본다.

과거 AI업계에는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성능이 좋다는 '거거익선(巨巨益善)'의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수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LLM)들이 각광받았던 이유다. 그러나 젼마 4는 이러한 통념을 정

면으로 뒤집었다. 구글의 최첨단 엔진 '제미니 3'를 이식받은 젼마 4는 자신보다 20배 큰 모델들을 벤치마크 점수에서 앞질렀다.

이는 인공지능의 핵심 가치인 '규모'에서 '효율'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매개변수 20억 개(2B) 수준의 경량 모델이 보여주는 강력한 추론 능력은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들에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한다. 바야흐로 'AI 민주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젼마 4가 가진 가장 파괴적인 특징은 '완벽한 오프라인 구동' 능력이다. 시각과 오디오 처리 기능을 모델 내부에 완전히 내재화한 덕분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재난 현장이나 오지, 혹은 보안이 생명인 국방 및 산업 시설에서도 지연 시간 없이 실시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우리가 알던 AI는 그동안 묻는 말에 답하는 '채팅형'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젼마 4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를 기

본적으로 지원한다. 사용자가 최종 목적지만 제시하면, AI가 단계별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행동하는 주체'로 진화한 것이다.

젼마 4의 종착지는 하드웨어와 결합한 퍼지컬 AI다. 그간 로봇이나 드론은 하드웨어 성능의 제약으로 무거운 AI 모델을 탑재하기 어려웠다. 젼마 4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지능을 제공함으로써 이 병목 현상을 단숨에 해결했다.

구글이 젼마 4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배포한 것은 기술 독점이 아닌 생태계 주도를 선택한 영리한 포석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강력한 운동장을 열어줌으로써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구름(Cloud) 속에 머물던 지능이 이제 우리 손안의 기기로, 현장의 하드웨어로 내려왔다. 이 강력한 도구를 드론에 태우고 로봇에 심어 산업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젼마 4가 물고 울 퍼지컬 AI의 파괴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끓다의 의미(1)

아침 신문에 '기름값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끓었다는 제목의 기사가'났다. 도대체 무엇을 끓였을까 하고 기사를 읽어 보았다. '비행기 샷이 오르기 전에 외국가는 항공권을 끓었다는 것이 주제였다. 이럴 때는 한국어를 40년 넘게 가르친 필자도 참으로 당황스럽다. 물론 기사의 제목에 속아서 읽은 것도 맞고, '끓다'의 의미가 다양한 것도 맞다.

'사람도 끓고, 술도 끓고, 도박도 끓고, 전화도 끓고, 학원도 끓었다'고 표현한다. 도대체 '끓었다'의 의미는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궁금하다.

"엄마! 나 학원 끓었다"라고 하면 필자는 "아, 아이가 학원을 그만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원에 등록했다는 의미였다.

"나 사회복지사 1급 따려고 학원 끓었다" "담배 연기 때문에 학원 끓었다" 위의 두 문장을 보면 '끓었다'의 의미가 서로 정반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있는 문장은 '학원에 다니기로 했다'는 뜻이고, 뒤의 문장은 '학원에 다니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끓다'의 가장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따로 떨어져도 잘라 가라'이다. 그런 데이것이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지속하지 않다' '더 이상 주지 않거나 받지 않다' '한 부분을 잘라서 사다' (사람이 표를) 돈을 내고 발급받다' 등과 같이 한없이 확장되고 있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

Sky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적대 주경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1부 1,300원/월 20,000원/연 240,000원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